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4월21일 부활주일을 맞아 주안예교회 유아들부터 90대 성도들까지 다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 <윤석중 집사>

■ 부활주일예배

‘외치리 주 이름~,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위대하신 주~, 주 찬양해 호산나~, 할렐루야!’ ...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찬양을 통해 교회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지난 4월21일 부활주일 예배, ICKidz, 중고등부를 포함한 주안예교회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 버림 당하심, 침묵,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 가면서 그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깨닫고 난 후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은 어둠 속의 빛처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이중환 담임목사는 요한복음 5장28-29절을 본 문으로 ‘생명인가, 심판인가?’ 라는 제목의 메시

지를 전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 의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악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지 모든 것은 죄(로마서 14장 23절)로 인해,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 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강조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관계기사 3면> <Staff Writer조용대>

Inside



세례 입고 예식 <3면>



주안에라이프 <4면>



영커플 수련회 <5면>



주안에만남 <9면>

‘큰 변화를 이끄는 도구가 되길...’

■ ‘주안에신문’ 복간 메시지

사랑하는 주안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신문을 접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동안 멈춰 있던 ‘주안에신문’이 다시 여러분 앞에 선 이 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어두움의 시간 너머,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번 교회 신문 발간은 단순히 중단된 출판을 다시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이며, 회복과 부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신문이 단지 교회 소식을 알리는 도구를 넘



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매개체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읽는 이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교회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신문이 교회 안의 세대와 부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 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9)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신문이 교회의 큰 변화를 이끄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편집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부흥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전하며,

<담임목사 이충환>

40대부터 90대까지 존경과 배려 ‘화기애애’

■ 4개 권사회 ‘사랑의 뱅킷’

지난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에 총권사회 특별한 이벤트가 새로 지은 비전채플 글로리홀에서 있었다.

주안예교회의 권사회는 연령에 따라 총 4개의 권사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제1 권사회 권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감사하기 위해 2, 3, 4 권사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사랑과 섬김의 잔치였다. 비전채플에서 열린 첫 뱅킷의



의미까지 더해져 참석한 90여 명의 권사들은 화기애애한 대화와 웃음으로 글로리홀을 가득 채웠다. 테이블마다



선후배 권사들이 섞여서 주안예교회 최고의 셰프들이 내놓은 음식을 들며 덕담과 격려를 이어갔다. 오병순 권사의 특송, 황여옥 권사의 지휘로 “아 하나님의 사람아” 즉석 합창이 가득 채워져 감동을 더했고, 이어 이충환 담임목사의 격려사와 권고의 말씀, 이예스더 권사의 기도로 진행 되었다.

정혜옥 권사가 제1권사회 권사들 한분 한분 소개하고 마련한 선물을 나눠 드렸다.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알아가는 아름다운 친교의 장이 된,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은 일을 감당하는 권사의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Staff Writer 이예스더>



두손 높이 들고 '주 이름 외치리' 기쁨의 합성

■ ICKidz·ICY 부활절 찬양

IC Kidz (IC Power & IC Now)와 ICY 중학생들이 연합해서 부활주일 특송 'Shout Your Fame'을 올려드렸습니다. 교육부 학생들이 약 한달동안 교회와 집에서 함께 연습을 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오는 부활절과 특송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지루하고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주안예교회의 귀한 다음세

대에 심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활절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부 학생들이 올려드린 특송이 단순히 공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예배라고 믿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이들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에그헌팅을 했습니다. 말썹카드, Easter eggs, 음식과 아이스크림, 등등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Easter egg를 찾아 다니고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했습니다. IC Kidz가 예배하고 기뻐 뛰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귀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보시고 예뻐하실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부활절의 데코레이션부터 에그헌팅 준비까지 PSG들과 교육부 선생님들의 후원과 봉사로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수많은 손길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지현 목사>

십자가 은혜·부활 소망 세례·입교자 15명 탄생

■ 부활주일 세례예식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뜻 깊은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다.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한 유아세례와, 어릴 적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본인들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입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교우 등 모두 15명이 세례를 받았다.

죄 사함과 구원의 교리, 그리고 교회생활에 대



해 학습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날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통해 주안예교회 세례교인으로 공포됐다. 예식 후 온 성도들의 축복송과 축하 꽃다발을 받고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세례 받고, 입교한 교우들은 다음과 같다.
유아세례-Jesda Sum(부모 파냐 슴-테리티앙) 입교-김다는 김유현 김재민 양혜나 엄우진 이이삭 조민건 조우리 허세원, 성인세례-이연주 이영숙 최창우 윤인정 이동현 <관계기사 15면> <Staff Writer 조용대>

만남의 기쁨, 배움의 즐거움 ‘행복한 우리학교’

■ 2025 전반기 ‘주안에라이프’

2025 년도 전반기 주안에라이프가 지난 3월 12일 개강되어 활발히 진행 중이다. 5월 21일까지 계속될 주안에라이프에는 작년도 전반기보다 참가인원이 100여명이 더 늘었다고 한다. 특별히 참가 시니어분들 중 1/3만 주안에교회 교인들이고 여타는 타 교회 교인일 정도로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많다고 한다.

활동 시작 시간이 오전9시지만 아침 식사를 못한 참가자들을 위해 8시 30분에 아침 식사가 제공된다.

이미란 전도사님의 사회로 9시부터 예배가 시작 되는데 장로님들의 기도 후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맡아 주신다.

예배 후 맨손 체조로 몸을 풀고 20여개 클래스로 나누어져 참가자들이 기능과 취미에 따라 신청한대로 1, 2 교시를 각 교실의 강사님들과 함께 수업이 진행된다. 각 클래스에서 이뤄지는 주안에라이프의 수업 내용이 수준이 높고 흥미롭다고 평가되어 매년 참가 인원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12시부터 시작되는 점심의 맛과 메뉴가 정말로 소문이 나 있다. 300명분 이상의 맛있고 정갈한 점심을 요리하고 배식하기 위해 30명 이상의 장금이들과 교역자님들 또 여러 장로님들이 자진하여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발바닥에 불이 날만큼 움직인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 모두가 정말로 맛있게 먹고 감사 한다.

이제 주안에라이프 활동 기간이 반 이상 지나는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애쓰실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표한다고 국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장로의 감사의 말씀이 있었다.

<Staff Writer 나형철>

합심 기도와 찬양 하루가 금방 지나

■ 제2권사회 기도의 날

고난주간에 제2권사회(회장 정혜옥)에서는 기도의 날을 하루 정하고 권사들을 필란 기도원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끝내고 6명의 권사들과 OC에서 2명의 권사가 각각 떠나서 필란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서 8명이 시작한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계속했습니다.

진행은 이예스터 권사가 맡아 속죄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 하도록 정하고 계속 속죄 찬양을 불렀습니다.

중간에 점심 시간이 되어 김영희 권사가 준비해온 김밥 재료로 각자 김밥을 싸서 앉은 자리에



서 점심을 먹고 계속 찬양과 성경읽기 후 각자 느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마침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본문인 마태복음 26,27,28장 까지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한 사람씩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7시간 동안 아무도 밖에 나간 사람이 없었고,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느라

7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권사가 저희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옥수수와 과일 한박스를 보내 주었지만 기도에 집중하느라 먹는 것도 잊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 권사들 입을 통

해 올려지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끝나고 정리해서 밖에 나와 기념 사진을 찍고 헤어질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좋은 시간을 갖었다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주안에교회의 부흥의 기초석을 놓았다고 감히 생각하며 교회안에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Staff Writer 이예스터>

도전과 변화 속 부어주신 회복의 은혜가...

■ 영커플 수련회

이번 영커플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되는 변화 속에 그저 시간만 계획했던 영커플 수련회가 너무 빠르게 다가와 수련회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하지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저기서 수련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시련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커플 한사람 한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 하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담당 목사님도 보내주시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는 영커플은 자칫 주님과 멀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깨지며 다시한번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며 저의 시선



이 가족들에게만 집중 되어있었던 차에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또한 옛날 청년부 때를 기억하며 울 나잇 게임도 시도하고 청년때로 다시 돌아가는 듯 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아니기에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린 기억도 나지만 그래도 은혜로 건디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전해주신 말씀처럼 영커플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우리 교회를 플랫폼을 삼고 주님을 향해 높게 높게 뻗어나가는 주안에교회 영커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커플 팀장 장주성>

창조의 아름다움 스케치북에 담아

■ 코람데오 아우팅

지난 4월 13일 주일 예배 후, 코람데오 한어 청년부는 화창한 봄날을 맞아 Getty Center로 꽃구경 아우팅을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맑은 하늘 아래, 약 2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발 전, 김지현 목사님의 기도로 안전한 여행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우팅이 시작되었습니다. Getty Center에 도착한 청년들은 가장 먼저 그 날 예배 설교 말씀을 함께 되새기며, 그 안에서 각자가 느낀 은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스케치북과 펜을 들고 Getty Center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꽃과 나무, 건축물과 자연,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경화부터 인물화까지, 각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스케치를 마친 후에는 푸른 잔디밭 위에 모여 앉아,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포근한 햇살 아래 함께 나누는 시간은 우리 공

동체의 따뜻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우팅을 마친 후에는 교회 코람데오실에 다시 모여 인앤아웃 버거를 함께 먹으며 하루를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술과 자연, 말씀과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귀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람데오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박수자>

하나님 말씀 한글자 한글자 써 가며 변화 체험

■ 수감자 성경필사 프로젝트

2025년 시작한 교도소 사역의 중요한 사역으로 진행 중인 '성경필사 프로젝트(DT 프로젝트)'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재소자 친구들이 손으로 말씀을 직접 쓰며 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되새기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6명의 형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써 내려가는 이 작업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말씀을 쓸 때마다 내 안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예전에는 말씀을 눈으로만 읽었지만, 지금은 손으로 쓰며 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필사 프로젝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밭에 깊이 심겨져 열매 맺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갇힌 곳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조용한 필사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정아 팀장>

필사를 시작한 형제의 편지

사실 성경을 쓰는 것이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더군요. 성경을 써 보니까 신약에 인용된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기억에 와 닿고 선지자들이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나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유혹) 때에 인용하신 구절이 구약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 할 때에는 자부심과 성경 읽기와 공부를 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을 기억 하게끔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지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저와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해 주시고 격려와 방문과 서신으로 희망과 보람과 금지와 용기를 주님의 사랑을 통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 자신 또한 출소를 하게 되면 사랑을 담아 베푸는 삶을 살아 가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과 합당하고 익숙한 생포 각각의 삶의 방식에 따라 지식이 아닌 가슴에 우리 나오는 진실을 토대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아바 아버지와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과 기호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Lee 형제 올림>

모국어 갈증, 면회시간 훌쩍

주안에호프는 매일 재소자들 중에 한사람을 위한 기도문을 팀원이 작성하여 주안에호프 카톡방에 올리면 온 회원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19명의 팀원들이 돌아가며 한 수감자를 위한 기도문을 올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상기 시키게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32개 교소도에 수감된 한인 1세 ~2세들을 면회하고, 재판기의 음식을 사서 대접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사랑의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는 그들은 주안에교회에 꾸준히 찾아주는 것에 너무도 고마워합니다. 송구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찾아간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한국어를 써보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찾아가면 한국어로 마음껏 소통하니 면회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있다가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악에서 떠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해도 감옥에서조차 유혹이 너무 많아 힘들어하는 그들, 주안에교회와의 만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외로움과 시험을 이기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 단절과 문화의 단절이라는 이중의 감옥을 살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누가 알까? 등의 생각이 들어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무겁습니다.

<Staff Writer 이예스터>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선교지, 소외된 이웃과 함께

■ 트레백 홈리스 센터 봉사

‘주안에네이버’는 주안예교회 선교전도국(국장 공태용 장로, 팀장 대니 구 집사)에 소속된 특수 선교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삶으로부터 희망을 찾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식탁을 나누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노스리지에 있는 트레백 센터는 퀴즈쇼 ‘Jeopardy’의 진행자였던 알렉 트레백의 기부로 설립된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주안에 네이버는 이곳에서 매 주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예배(문인권 목사 설교, 오병순 권사 이진희 집사 찬양 연주)에 이어, 6시부터 7시까지



음식 봉사를 진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이 사역은 현재 주안예교회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3일 주일에는 두 분의 헤어디자이너(유진희, 조애나 리 권사)께서 센터에 방문해 미용 봉사로 함께해 주셨고,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EM과 ICY가 함께 찬양과 예배(조슈아 김 전도사 설교)로 섬겨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소외된 상황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

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멀리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안에 네이버는 그런 이웃을 찾아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작고 평범한 손길이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이웃의 마음을 열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역에, 누군가의 삶에 힘이 되어 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지난 사역의 모습은 인스타그램 주안예교회 주안에 네이버(@iccc_neighbor)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총무 임가희 권사>



A Heart Softened

■ EM 주안에네이버 참가 소감

IC Neighbor (ICCC's homeless ministry) invited EM to be part of a special Easter program at the local homeless shelter where they serve weekly. We prepared gift baskets with toiletries and Easter candy to take to the shelter. I made excuses to God as to why I could not go. "I'll do it when I'm older" or "when I have the time." I reluctantly obeyed when the

Japan mission team was asked to practice our love for whom God loves, starting with neighbors at home.

The shelter smelled of cleaning products. In the main room while setting up tables and chairs, I prayed silently for God to soften my heart so that I could serve with love in an environment I wasn't comfortable in. The program included performances by Justin Kim and a body worship by Pastor Josh, Hanna and Jean from ICY. It was heartwarming to watch the shelter brothers and sisters enjoy the performances. I was

also pleasantly surprised by their participation in the Easter quiz.

After worship, I helped with dinner prep in the kitchen, adding heapfuls of salad, rice, beef, and pickles on plates. A brother or sister would pop their head into the serving window to express their gratitude for the food. Each time, my heart warmed for those who gave thanks despite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I was challenged by their gratitude and began to realize while I came to "give" I walked away receiving. Thank you to the ICNeighbor ministry for the opportunity! <Hanbi Cho>

‘1인 1교육 훈련’ 참여·산행 통해 소중한 교제

■ 안수집사회 2025 캠페인

2025년 안수집사회는 조경일 안수집사회장님이 제시한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사역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리더로서의 영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1인 1교육 이상 참여 캠페인”은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안수집사회가 주관하여 기획한 ‘주안에 산행’은 성도들과 자연 속에서 교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의 산행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였고, 그 열매를 바탕으로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을 ‘주안에 산행의 날’로 정제화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산행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걷는 시간일 뿐 아니라, 서로를 격

려하며 믿음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안수집사회 야유회를 통해 더욱 깊은 친교를 나누고, 하반기에는 안수집사 찬양 특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2025년, 안수집사회는 “A NEW BEGINNING”이라는 표어처럼 새롭게, 그러나

더욱 깊이 있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사역과 따뜻한 섬김으



<자료사진>

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할 안수집사회의 걸음을 기대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총무 이원근>

■ 제3권사회 부활주일 오찬 대접

주안에교회의 3권사회에서는 죽음에서 승리하시어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특별 오찬을 정성껏 준비하고 성도님들께 대접하였다

3권사회 권사님들은 물론이고 2권사회와 4권사회 권사님들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일처럼 솔선수범 해주신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를 향한 우리의 섬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큼 영광스러운 승리임을 인식하며,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분주히 움직이면서 믿음을 다져가고 있는 주안에교회의 권사님들을 힘차게 응원하며 축복한다.

<Staff Writer 오희경>



‘예수님 몸된 교회’ 믿음의 여정 함께 해요

■ 제32기 주안에만남

지난 3월 16일 주일 오후에 제 32기 주안에만남이 새가족실에서 열렸다.

이충환2대 담임목사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뜻 깊은 자리였으며 새롭게 등록한 새 교우 24 명이 참석해서 새가족국에서 직접 준비한 정성 가득한 음식을 신임 장로님들로부터 서빙 받으며 멋진 식사 시간을 즐겼고, 자연스럽게 이충환 목사의 목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목사는 목회비전인 1) 예배 2) 선교 3) 양육 4) 훈련 5)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설명 후, 새가족들의 적극적인 사역 동참을 권유했다.

주안에교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안에교회의 지체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길이 되길 기대한다.

<Staff Writer 오희경>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 발견

■ 새가족 소감 / 이동현

지난해 11월 Thanksgiving 즈음 주안에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이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주일마다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3월 중순에 새가족 환영 모임에 참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없었기에,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섬기는 코람데오 형제자매들의 따뜻한 환영과 담임목사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통해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안에 만남'을 통해 주안에교회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음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단했던 순간부터, 매 주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주안에 만남' 이후,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귀한 만남과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안수집사회 정기산행

힘겨운 오르막 끝 정상 도달 '와!' 감탄사

지난 2월 22일, 안수집사회가 주최한 Towsley Canyon 첫 산행이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산행 경험에 많은 가이드 조용대 장로님과 총 18명이 참가했다. 다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발하지 못한 2명의 응원 속에 나머지 16명 전원이 왕복 6마일을 완주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자연 속에서 시작된 여정... 산행에 앞서, 안수집사회에서 준비한 김밥과 물로 간단한 요기를 한 후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초입의 평탄한 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 소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했고, 곳곳에 핀 야생화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했다.

정상을 향한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반부로 접어들며 오르막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도 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산타클라리타 계곡과 주변 산맥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정상에 도착한 순간, 성도들은 끝없이 이어진 산과 계곡의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체험했다. 또한 저 멀리



5번 프리웨이를 따라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달콤한 쉼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상에서 성도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안예교회와 안수집사회를 위한 기도도 드렸으며, 각자 가져온 간식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 만난 이들도 어느새 가까운 형제, 자매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에도 꼭 함께해요!" 이런 행사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이러한 행사가 교회 내에서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Staff Writer 이원근>

7월 일본 단기선교 떠나요



오는 7월, 주안예교회 단기선교팀이 일본 도메(Tome) 지역의 그리스도 동명교회와 함께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사역입니다.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영어 캠프에서는, 말씀 묵상과 찬양, 영어 수업, 공예, 요리,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하는 일본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기쁨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교팀은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의 특별한 점은 주안예교회 일본영어선교팀과 현지교회 사역팀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던 이들이, 일본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땀 흘리며 섬기게 됩니다.

또한, 사역 전까지 매 주일 '프로젝트 기반 선교 훈련'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복음의 열매로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중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장로>

♥ ‘주안에 새싹들’ 예배와 돌봄 정성 다해요 ♥

■ ICJoy 유아부

ICJoy(유아부)는 현재 1세4세 의 13명의 유아들과 헌신적인 선생님들 & 요게벳씨포터 15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돕는 데 헌신하는 부모님들과 협력하면서, 부모님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캔버스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그리기 위해 기초가 되는 구도를 잘 잡아야 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그들의 삶의 캔버스에 그려갈 수 있도록 삶의 시작점에서 바른 구도와 스케치를 주고 싶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순종의 태도를 통해 준비된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중보하며,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예배(11am)와 금요일예배(7:45pm)를 통해 찬양, 메시지, 게임, hands on activities 등 모든 감각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함께



경험하고자 하오니, 꾸준한 예배참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니콜 전도사>

■ 새 요게벳 강진령 집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요게벳 선생님께서 섬길 수 있게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힘든 시간도 많았지

만, 감사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시 이자리에 나올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주안에교회로 저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 목장식구들, 그리고 특히 저희 자녀를 ICKIDZ 에서 ICY 까지 12년동안 양육해주신 주님. 그리고 교육부에서 애써주신 모든분께 짧은글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페어·운동회로 알찬 마무리

■ 한글학교 종강 행사

추운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따뜻하고 향긋한 봄날처럼, 주안에한글학교도 그간의 열심히 꽃을 피우듯 어느새 1년의 마무리에 접어든다. 한학기를 마무리하는 꽃이자 하이라이트 행사로 자리매김한 봄맞이 운동회가 오는 5월 4일 오후1시 교회 본당 분수대앞에서 열린다.

올해는 특별히 운동회장소에서 한글책 바자회 book fair도 함께 오픈할 예정이다. 첫 행사라 아직 많은 책이 모이지 않았지만 먼저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시기로 했다. 학부모들과 일반 성도님께서는 아이들위해 저렴하게 한글책을 구입하는 기회로 또 모아지는 기금은 한글학교의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그간 자녀들이 다 자라서 집에 그냥 모아둔 한글책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뜻깊은 이 행사에 도네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5월4일 오전까지 2층 408호 한글학교 교실로)



또한 한글학교에서는 돌아오는 새학기에 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이끌어 주실 한글학교 선생님을 모집 중에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온마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듯 한국인이자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다채로운 경험을 위해 미술, 운동, 종이접기 기타 여러 다양한 재능 기부로 동참해 주실 특별활동 선생님들도 기다리고있다. <Staff Writer 이현영>

주안에교회 공동체 소중한 사랑 경험

■ 코람데오 송영민

"저는 일본에서 18년을 지냈고, 지금은 미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주안에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영적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구원이 없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얼마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번 여름, 저는 일본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일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회에 놀라움과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선교팀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송영민 형제는 2부 성가대와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보컬싱어로 섬긴 코람데오 한여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누나를 통해 주안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 교역자 부임 / 김지현 목사

주안에서 돌보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에 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안에 신문'을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2일 부터 주안에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김지현 목사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남편 (김현수, 현 동양선교교회 피택장로), 그리고 딸 (김소나 24세), 반려견 코아 (German Shepherd) 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 사역자로 다음세대 사역을 주로 했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청년, 성인 공동체를 함께 돌보며 비교적 다양한 사역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미국복음주의 교단을 통해 안수를 받고, '여성 사역 목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가을, 남편이 장로로 피택 되면서, 교회 헌법에 따라 저희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들었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안에교회'로 3월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IC Joy와 IC Kidz', '코람데오 청년 공동체와 Agape 영커플 공동체' 섬김을 주된 사역으로 하며, 장년 사역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 동역자들을 곳곳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저를 불러 주신 것 같아, 그 분의 많은 생각과 계획을 기대하며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는 '주안에교회'로 저를 불러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돌보도록 불러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따름입니다.

앞으로 '주안에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의 일을 도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고 섬기며,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안에교회' 성도님들께다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 새겨

■ 세마 장학회 성경암송

주안에세마 장학회 성경암송 첫 평가가 2월23일 열렸다.

금년 첫 암송에도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지난해 못지 않는 높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 성경암송 장학금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안에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자녀까지 장학금 수혜에 포함해 5개지역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금년 세마장학회에서 지정한 성경암송 범위는 시편27편, 잠언3장1-12절, 마태복음5장1-16절, 요한복음14장, 고린도전서13장, 갈라디아서 5장, 히브리서11장 (특별가산점 부여)으로 매달 마지



막 주일 심사위원들 앞에서 암송해 평가 받으면 된다. 암송이 끝나는 금년 7월중 최종 평가 후가 입학기에 맞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시작한 성경암송이 자녀들이 앞길에 등불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말씀이 될 것을 믿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주기를 소망한다. <류정우 집사>

■ 주안에신문 '전입 신고합니다!'

소중한 사역·공동체 통로 역할

■ 신입기자 이원근 집사

기록하는 섬김이, 순종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문서국 기자로 섬기게 된 이원근 안수집사입니다. 2013년, 다우니에서 주안예교회 첫 개척예배를 드릴 때부터 함께하며 주안예교회의 걸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주차국, 봉사국, 음향국, 예배국, 평사원, 재정국, 성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교회를 알아가고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제게는 큰 경험과 배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안에신문 기자로 새롭게 순종



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역과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전달하는 이 사명이,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작은 섬김이 공동체를 연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안예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격려하는 글을 써내려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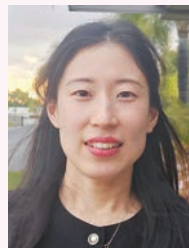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

■ 신입기자 송명진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생물들의 소리,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와 문화로 이루어진 소리까지. 이 수 많은 소리들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도 있으며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주안에신문도 이러한 소리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저의 바람과 기도는 저희가 이곳에 담을 소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이야기로 모든 성도님들이 필자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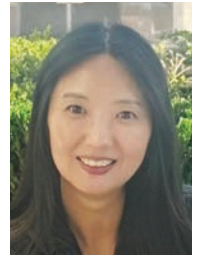
아무리 모방을 하려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



하신 '바라'의 하나님, 그 숨씨를 따라할 수 없듯이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는 저희 각 성도님들의 삶에서 매 순간 일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출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소하고 자그마한 소리일지라도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와 함께 나누어져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듣고싶은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에서 '순종'

■ 한글학교 김혜영 교사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봉사에는 마음을 두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조금씩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기회를 찾던 중, 우연한 계기로 한글학교 교사로 섬겨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고 처음에는 망설임도 컸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순종의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한글학교 교사 미팅에 참석하게 되면서 새로운 섬김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저였지만, 한글학교 공동체의 전도사님, 권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신 덕분에 첫 미팅부터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시작한 섬김이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새로운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주신 섬김의 자리라는걸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 교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교재도 미리 살펴보고 나름대로 준비도 해보았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공동체의 멤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한글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위주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한글학교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고,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가운데 제 신앙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이 섬김의 자리까지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안에신문'은...

2013년 주안예교회 창립 이래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회 행사와 사역국 소식, 교우들 동정과 기고 등 다양한 내용을 커버합니다. 교회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소통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주안에신문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원고 및 사진 접수 icccnews123@gmail.com)

Staff Writers - 조용대(팀장) 오희경(부팀장) 나형철 이예스더 이원근

류명수 이현영 송명진 이현주, 사진-윤성중 송기영

주안에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62장5, 8절>

시편 62장에 말씀은 전에 제가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이번 성경통독 중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에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지, 되돌아 보게 했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방법대로 결정 할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은혜로 다가 왔습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8절 말씀처럼 힘들고 곤고할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백미선 집사>

하나님 사랑 더 느껴요

매일 매일 긴장의 연속이던 겨울동안 하나님저 정신좀 차리게 도와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하던 중 무슨생각이 들었는지 도전적인 말씀통독이란 코람데오 지체들의 권면에 얼음물 목욕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주안의 말씀은 그야말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월요일마다 컨디션은 엉망이었고 일도 많아 말씀을 그만둘생각도했지만 그럴때마다 말씀엔 항상 내 죄를 씻으려 이땅에 보내실 예수님을 계획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왜 꼭 그럴때 보여주시는건지. 원망도 있지만 늘 좋으신하나님만 붙잡고 여태껏 버티고 온 결과 말씀은 이제 신약까지 오게 되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안의 말씀 이후의 삶은 따뜻한 온천 같을 거란 기대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실 은혜가 더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신민지(코람데오)>

■ 성경 통독 '주안에말씀 24기'

우리 주안에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훈련을 진행해 왔다.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인 '주안에 말씀은' 18주 동안 참가자들이 매주 하루 줌을 통하여 함께 성경을 20장 가량 통독하고 나머지 6일간은 가정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성경 40~50장을 개인 통독을 한다. 그러면 창세기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부를 읽게 된다.

2025년에는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7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번 제24회 '주안에 말씀' 성경통독 훈련은 제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참여이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와 은혜의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형식에 얽매일 때도 있었고, 집중하지 못한 채 하루 분량을 마치기 바빴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말

시30분(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30 분(목요일)에 40명 가까운 인원이 함께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령이 20대 초반부터 80 세가 넘는 다양한 인원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통독은 줌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정해진 순번대로 대표로 큰 소리로 읽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통독을 이어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통독훈련은 2014년 1월달에 제1기 훈련을 시작한 후 지난 12년동안 매년 2회씩 진행하였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23기 훈련까지 849명 이 훈련을 수료하였다. 펜데믹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은 줌으로 계속 진행했는데 이전에 한 곳에 모여 통독을 하는 것보다 더 참여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18주 통독훈련을 마친 성도들은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계속 가정에서 읽게 되고 훈련을 마친 성도들 중에는 통독훈련에 5~6차례 계속 참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는 주안에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교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Staff Writer 나형철>

숨 앞에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동안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이었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라는 표현은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드러나는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원근 안수집사>

■ 주안에삶을 마치고...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

주삶을 시작할 무렵 저는 오랫동안 미루어오던 기도의 방을 만들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매일 기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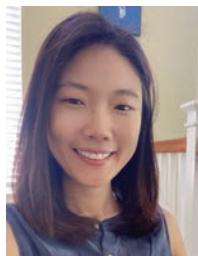
주삶을 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감사했던 일은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른 손을 회복시키시는 기적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난 일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부에 있을 때 대학부 목사님을 많이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가지 이유로 그분을 정말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를 그저 “나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 하면서 참 어려웠으며 웃으며 지나가듯 얘기하곤 했었는데, 기도의 방에서

기도 중에 갑자기 그 때 그 미워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분을 판단했던 일, 정죄했던 일, 그분을 미워하느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교회 친구에게 자주 했던 것 등 평소보다 세세하게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마치 나에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저는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지는 못했지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기대하며 읽어가는 그 여정이 행복했습니다. 예



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거룩한 독서를 통해 평소에 기억에 남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듯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쁩니다. 노기가 가득했던 바리새인이 곧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던 삭개오의 마음과 태도를 보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왜 자기 돈도 아닌 주인 돈을 자기 맘대로 했는데 칭찬을 받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나의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주삶 훈련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좋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을 훈련 시간에 두 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세 번째는 암송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때 다 같이 모여 같은 말씀을 읽는 그 찰나의 순간이 거룩하게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아라>

■ 세례 간증문

‘주님 안에 새 생명’

불교를 믿으며 불공을 드리는 집안에서 태어나 절을 놀이터 삼아 자연스레 부처님의 딸이라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엔 늘 평화가 없었으며 불안한 20대를 보냈습니다.



저의 첫 교회 방문은 동네 교회였으며 새벽기도 시간 우두커니 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시절에 전도 받았고, 빠른 시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곧바로 죄인임을 받아 들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실제로 만나지 못해 늘 갈등이 있던 시기 새벽기도에 나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던 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을 잊어 본적이 없으며, 태어나 한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시간을 내리 울었고 눈물이 그치자, 씻김을 받은 느낌이 있었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바라본 십자가는 이전에 보았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많은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작년,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의 물로 죄를 씻고 주님 안에서 새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늘 진실로,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영커플 이연주>



■ EM·ICY 성금요일 예배



EM & ICY gathered for Good Friday worship to remember Jesus obedient sacrifice and the Father's great love for us. The service opened with a video depiction of passion week as Christ suffered, was chastised, stricken, abandoned and mocked for our sins and our restoration. After heartfelt praise and the delivery of the word of God, the congregants were encouraged to write their sins on paper, take it to the cross and place them in water to dissolve away, representing Christ blood to wash away our sins.

EM과 ICY는 예수님의 순종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성금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징계받으시며, 버림받고 조롱당하신 고난주간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회복을 위해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 회중은 자신의 죄를 종이에 적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물에 넣어 녹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 Gethsemane Night

I had the blessing to be able to attend ICY's praise and prayer night, Gethsemane! The night was filled with worship, quiet reflection, and intentional prayer. Led by our praise team, we spent an hour in worship, letting our hearts focus on God. In between worship sets, Pastor Josh guided us through three prayer prompts. One was, "What is holding in your heart?" That question stayed with me. It made me reflect on the burdens I've been carrying-some I didn't even realize were there. As a high school student, I'm often overwhelmed by academics, the pressure to succeed, and fears about the future. During that time, I prayed and asked God to help me release those worries, trust Him with my



plans, and surrender it all to Him.

The night reminded me of how Jesus praye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Even when He was struggling, He still chose to follow God's plan. In the same way, Gethsemane gave all of us a chance to pause, be real with God, and give Him what we've been quietly carrying.

<Erin Lee, 10th Grade>

Gethsemane will be one of the most memorable nights of my life due to its energy, worship, and overall presence of God. The never-ending tunes and voices that filled the worship room along with people tearing up after being deeply moved by the Spirit. Made me believe that it truly was a holy night filled with surrender, joy, and renewal. The hour-long prayer complemented the ethereal praise allowing for an even deeper and more intimate connection with Christ.

The night did not end there however as after hours of passionate worship we were able to eat delicious tacos and enjoyed genuine fellowship. Overall Gethsemane was a night that united hearts as God's presence filled the room with joy, healing, and revival.

<Joshua Cho, 10th Grade>